

# 베누티의 이국화와 자국화, 그 적용을 위한 고찰

이상원  
서울대학교

**Sang Won Lee(2011), How to Apply Lawrence Venuti's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Korean researchers frequently apply Venuti's concepts in analyzing translation practice. This paper poses three aspects which need to be considered during the application of those concepts. First,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are not either-or alternatives. For Venuti, domestication is translation reality rather than a translator's choice. Second, the two concepts cannot be regarded as linguistic strategies. Intentions and effects are more essential than linguistic intervention itself.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ntexts of Korean translation history and market. Applying theory to severely different socio-cultural contexts could result in inaccurate analysis and inappropriate domest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Keywords: domestication, foreignization, Venuti**

## 1. 들어가는 말

이 글은 몇 학기에 걸쳐 번역학 전공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의문에서 출발했다. 입문이나 개론 성격의 강좌에서는 여러 번역 이론이 소개된 개론서를 학생들과 일독한 후 이론을 하나 선택해 검토하거나 적용하는 과제를 부과하곤 한다. 그런데 이럴 경우 학생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이 베누티의 자국화와 이국화<sup>1</sup> 개념이었다.

---

<sup>1</sup>베누티가 도입한 용어인 domestication과 foreignization은 자국화/이국화 외에도 현지화/타지화, 자국화/외국화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여기서는 자국화/이국화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대개 그런 과제에서 학생들은 영한 번역 텍스트를 하나 선택해 텍스트 일부를 원문과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자국화 또는 이국화 경향이 두드러지는지, 혹은 번역의 자국화 또는 이국화 성향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야 하는지 기술하곤 했다. 이러한 작업은 이론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이론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두 가지 의문이 들었다. 학생들은 왜 다른 이론에 비해 베누티의 논의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일까? 그 논의의 탄생 배경이나 내용을 고려할 때 자국화와 이국화는 위와 같은 번역 사례 분석에 활용 가능한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미흡하나마 답을 얻기 위해 이 글은 우선 베누티의 두 저작을 중심으로 그의 논의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다. 그리고 자국화와 이국화 개념을 중요한 이론적 토대로 삼은 국내의 박사 논문 두 편,<sup>2</sup> 자국화와 이국화 개념을 다룬 국내의 번역 이론 논문 세 편<sup>3</sup>을 검토하며 이 개념의 적용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위에 제기한 의문에 답을 구해 보겠다.

## 2. 베누티의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

자국화와 이국화는 독일의 철학자이자 번역이론가인 슈라이어마허(Friedrich E. D. Schleiermacher)가 1813년, 강연 도중에 내놓은 다음과 같은 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저자를 가능한 한 본래 자리에 가만히 둔 채 독자들을 저자 쪽으로 끌어오든지 아니면 독자들을 본래 자리에 가만히 두고 저자를 독자 쪽으로 끌어오는 것이다”(Lefevere 1977 : 74, Venuti 1995 : 20 재인용). 베누티는 이 두 가지 방법에 각각 이국화(foreignization)와 자국화(domestication)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이국화와 자국화가 슈라이어마허의 독자 혹은 저자 끌어오기와 완전히 동일한 것인지, 다르다면 어떻게

---

<sup>2</sup>이 두 편은 정성열(2008)의 “학술 영한 번역에서의 자국화와 해석적 전략”과 성승은(2010)의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임을 미리 밝혀 둔다.

<sup>3</sup>이 세 편은 선영아(2008)의 “동화의 미학과 차이의 윤리: 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 이미경(2009)의 “베누티의 ‘차이의 윤리’와 이국화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베르망의 관점으로,” 윤성우(2010)의 “언어, 번역 그리고 정체성: 베르망, 베누티, 그리고 들뢰즈의 번역론을 중심으로”이다.

다른지 구구절절 설명하지는 않는다. 이 개념들은 역사 속에서 번역사가 비가시적인 존재가 된 과정을 설명하고 그 극복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또한 현재 패권 문화권의 문학 번역에서 나타나는 자민족중심주의를 우려하고 번역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보이기 위해 동원될 뿐이다. 저작의 내용을 통해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는 베누티의 1995년 저작인 『번역사의 가시성: 번역의 역사(*The Translator's Invisibility – A History of Translation*)』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부제가 보여 주듯이 책은 번역의 역사를 개관하고 있다. 영어권에서 번역의 대원칙이 유창성(*fluency*)으로 자리잡은 초기 낭만주의 시대, 19세기 초 독일에서 나타난 이국성 보전의 경향, 19세기 말 이탈리아 작가 타체티(*Iginio Ugo Tarchetti*)의 번역에서 드러나는 불일치 지향 번역, 20세기 주류 문학의 입지 약화로 인한 미동적 변화가 순차적으로 제시된다. 베누티가 분석해낸 번역의 역사는 유창성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미약하나마 이국화가 시도되는 모습이다. 자국화는 ‘투명<sup>4</sup>’하고 유창한 번역에 대한 선호라는 다소 모호한 의미로 제시된다.

베누티는 오늘날 대세를 이루는 유창한 번역에 이의를 제기한다. 번역 텍스트는 기존 문화와는 다른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 발전하는 장소여야 하고 독자들에게 문화 간의 차이와 타자의 존재를 인식시켜야 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Venuti 1995: 306). 그리하여 그는 번역사들에게 이국화 번역 전략의 실천을 호소하게 된다.

이국화 번역 전략은 원문 텍스트의 선택, 그리고 번역 담화의 개발이라는 두 축으로 크게 나뉜다. 번역사는 도착어권의 외국 문학 정전에 도전하는 텍스트를 선택함으로써, 또한 도착어 담화의 위계에 위배되는 담화 전략(예를 들어 유창하고 투명한 담화 대신 고어체를)을 선택함으로써 이국화를 실현할 수 있다(Venuti 1995: 148). 이러한 이국화 전략은 도착어 문화에서 외국 텍스트를 자민족 중심으로 변용해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더 나아가 도착어 문화의 문학 체계를 개편하여 문화적 발전을 촉진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이국화를 위한 번역사들의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Venuti 1995: 310-312).

---

<sup>4</sup>‘투명성(*transparency*)’은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용어이다. 원문이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번역이라고 잘못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베누티의 논의에서 텍스트의 투명성은 2차적이거나 부차적인 의미가 동반되지 않는 것, 따라서 독자가 추가적인 정보 해독의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일단 정리하겠다.

- 도착어 문화에서 주변적인 원문을 선택하되 정전화된 도착어 담화(예를 들어 투명한 텍스트)로 번역하는 것
- 도착어 문화권에서 정전화된 원문을 선택하여 주변적인 담화<sup>5</sup>(예를 들어 고어체)로 번역하는 것
- 저자의 권위에 대한 고민, 번역 계약에 대한 검토, 번역 비평과 교육의 변화 등 번역 전반의 상황을 개선해 나가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원문 텍스트 선택과 번역 담화를 불일치시키는 것이다. 주변적인 원문은 주변적인 담화로, 정전화된 원문은 정전화된 담화로 번역하는 것이 당연 시되는 상황이므로 이를 바꾸어 주변적인 원문을 정전화된 담화로, 반면 정전화된 원문은 주변적인 담화로 번역하자는 것이다. 이는 도착어 문화권의 기존 문학 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셈이 된다. 마지막 행동 지침은 번역 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상황까지도 함께 변화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번역사의 가시성: 번역의 역사』가 통시적 접근이었던 반면 베누티의 1998년 저작인 『번역의 윤리: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원서명: *The Scandals of Translation – Towards an ethics of translation*)는 공시적이다. 앞의 책에서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유창한 번역’이 대세를 이루는 현재 상황을 파악했으니 다음 수순으로 현재 상황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하는 듯하다.

베누티는 베르만(Antoine Berman)의 개념을 빌려 현재 영미권에서 이루어지는 소수어로부터의 번역은 나쁜 번역, 즉 외국 문화에 대해 자민족 중심적 태도를 형성하는 번역이 주류를 이룬다고 진단한다. 그리고 원저자와 번역사의 위상, 저작권, 번역을 통해 형성되는 문화적 이해, 문학 교육, 철학서 번역, 베스트셀러 등 현재 시점의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다수에게 인정받는 중심적 지위 획득을 결코 목표로 삼지 않는 소수화된 번역, 지배적인 표현 방식에 매몰되지 않고 언어의 혼질성을 확보하는 번역을 주장한다.

물론 번역은 근본적으로 자민족 중심적인 활동이라고 파악된다(베누티 2006: 20).<sup>6</sup>

<sup>5</sup>주변적인 담화는 바로 위에 언급된 정전화된 담화와 상반되는 의미이다. 계속 등장하는 ‘유창하고 투명한 담화’가 정전화된 것이라면 고어체, 방언 등은 중심부를 차지하지 못하는 주변적인 담화가 된다.

<sup>6</sup>2006년에 출간된 번역본의 쪽수로 표기한다.

번역의 기능은 외국 텍스트를 자국의 것으로 동화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번역사는 도착어 문화의 자민족주의 강화를 위해 외국 텍스트와 외국 문화를 제공해 온 지금까지의 역할을 벗어나 자국의 자민족 중심성을 단호하고도 엄격한 자세로 고쳐 나가는 방식의 번역을 실행해야 한다고 독려된다. 이를 통해 자국의 정체성, 이념 및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변화 시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 책은 식민주의 및 후기식민주의 상황, 특히 오늘날처럼 세계화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자국화 번역을 통해 구축, 강화되는 자민족중심주의가 특히 심각한 불균형과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비영어권, 즉 주변적 문화권의 상황도 언급하고 있다. 이런 지역에서 유창성의 번역 전략이 반복될 경우 자칫 패권적 가치의 무비판적 소비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문화 교류상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된다는 것이다(베누티 2006: 322).

두 저작을 통해 드러나는 베누티의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는 번역을 거대한 사회적·제도적 영향력 하에서 파악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제도적 영향은 유창한 번역이 대체를 이루도록 했고, 번역과 번역사는 불평등과 차별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번역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국화 번역 전략이다. 이국화 번역은 번역사의 존재를 드러내 주고, 또한 번역을 통해 한층 공고해져 온 자민족중심주의에 번역을 가져올 수 있다.

### 3. 자국화와 이국화에 관련된 몇 가지 논점

위에서 소개한 베누티의 논의는 국내 연구들에서 자주 다루어진다. 하지만 이국화 개념이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축소되기도 하고,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그대로 한국 상황에 적용되기도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이론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고찰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다룰 논점은 첫째, 자국화와 이국화가 양자택일의 전략인 듯 다루어진다는 것, 둘째, 자국화와 이국화가 언어적 표현 위주의 전략처럼 등장한다는 것, 셋째,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가 상황 맥락의 차이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한국의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다.

### 3.1. 자국화와 이국화는 양자택일의 전략인가?

자국화와 이국화는 번역에 관련된 가장 해묵은 논의, 즉 “직역이 옳은가, 의역이 옳은가”와 맥을 함께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다. “서로 길항하면서 끊임없는 대립을 거듭해 온 이 두 가지 번역의 과제는 그 동안 번역사에서 자유스러운 직역<sup>7</sup> / 충실한 직역, 도착 텍스트 중심적 번역 / 출발 텍스트 중심적 번역, 자국화 전략 / 외국화 전략의 갈등 관계로 유형화되어 왔다”고 한 선영아(2008: 195-196)를 보면 이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제시된 구도에 따르면 자국화 전략은 도착 텍스트 중심의 자유로운 번역이고, 이국화는 출발 텍스트 중심의 충실한 직역에 해당하게 된다.

윤성우(2010: 126) 또한 “언어의 정체성 문제에서 번역이 해낼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의 관점에서 보면 번역에서의 의역, 가독성, 의미 전달, 기의, 도착문을 중시하는 입장과 직역, 충실성, 형식, 기표, 원문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전자의 입장은 외국어가 지닐 수 있는 낯섦, 이국성, 타자성을 순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도 이국성과 타자성을 순치해야 하는 입장, 즉 자국화 입장이 도착문을 중시하는 의역 경향으로 분류되는 것이다.

자국화와 이국화는 이렇게 각각 직역과 의역 경향의 후손으로 이해되면 되는 것일까? 자국화와 이국화 또한 직역과 의역 대립과 마찬가지로 유창한 번역 대(對) 유창하지 않은 번역, 투명한 번역 대(對) 투명하지 않은 번역의 대립 구도로 볼 수 있는 것일까?

“번역은 필연적으로 모종의 자국화 작업을 수행한다”(베누티 2006: 17)거나 “번역이란 근본적으로 자민족 중심적인 활동이다. 번역의 기능은 바로 외국 텍스트를 자국의 것으로 동화하는 것이며, 외국 텍스트에 자국의 이해 가능성과 관심을 각인하는 것이다”(베누티 2006: 26)라는 베누티의 언급으로 미루어 볼 때<sup>8</sup> 이러한 이항 대립을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베누티의 논의에서 자국화는 양자택일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에 앞서 ‘이미 주어진 조건’에 가깝다. 외국어 원문을 도착어 독자가 읽을 수 있도록 도착어로 바꾸는 것

<sup>7</sup> ‘자연스러운 번역(free translation)’을 잘못 쓴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sup>8</sup> 2010년 12월 11~13일 뉴질랜드 웰링턴 빅토리아대학에서 열린 학술대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Literary Translation)에서도 베누티는 질문에 답하면서 “모든 번역은 기본적으로 자국화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자체가 자국화인 것이다. 결국 모든 번역 텍스트는 기본적으로 자국화의 결과물이다. 베누티의 주장은 이 자국화된 번역 텍스트에 번역사가 이국화 요소를 조금이라도 첨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이국화 요소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 번역 텍스트를 ‘자국화’가 아닌 ‘이국화’의 결과물이라고 부르는 어렵다. 최소한의 이국적 성격이 부가된 자국화 텍스트, 자국화의 정도가 살짝 경감된 텍스트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바꿔 말하면 유창한 번역 대(對) 유창하지 않은 번역의 대립이 아니라 유창한 번역 대(對) 약간 덜 유창한 번역의 대립이다.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에서 베누티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이국화에 있다. 그리하여 이국화 전략은 강조되지만 자국화 전략은 언급되지 않는다. 앞서 말했듯 자국화는 ‘이미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이다. 반면 직역과 의역 논쟁은 두 가지 번역 가능성에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를 모색한다. 둘 중 어느 하나가 근본 조건이 되고 다른 하나로 부분적인 보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가정되지 않는다. 결국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를 직역과 의역 논쟁에 연결시키는 것은 베누티가 번역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 시각을 왜곡해 바라보게 한다. 더 나아가 베누티가 의역보다는 직역을 옹호하는 직역주의자라는 오해까지 낳을 수 있다.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를 직역과 의역 논쟁과 연결시킬 때 발생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이럴 경우 자국화와 이국화가 마치 번역사 개인 차원에서 선택 가능한 전략처럼 인식된다는 것이다. 직역과 의역 논쟁에서도 텍스트 특성, 독자의기대, 번역의 목적 등 점차 다양한 상황 맥락이 고려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 상황 맥락을 고려해 최종 선택을 내리는 주체는 여전히 번역사 개인이다.

하지만 베누티의 자국화 개념은 번역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문 텍스트가 결정되고 번역이 시작되는 순간 이미 자국화는 이루어지게 된다. 번역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국화 번역 과정에서 이국화 전략을 도입할 것인지, 도입한다면 어떤 전략을 행할 것인지 정도이다. 여기에서도 사회적·제도적 영향력이 작용한다. 유창한 번역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압력이 크면 클수록 번역사 개인의 결정권은 축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출판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번역한 책이 판매되어야 하는 번역사 입장에서 사회적·제도적 영향력을 벗어난 선택은 쉽지 않다.

### 3.2. 자국화와 이국화는 언어적 표현 위주의 전략인가?

자국화와 이국화 개념을 번역 분석에 도입한 연구들을 보면 언어적 표현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성열(2008)의 논문은 영어 어휘나 문장 구조를 그대로 따와 사용하는 번역 텍스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도착어의 자국화’라는 개념을 도입한다(정성열 2008: 2). 이는 “영어 번역체와 일본어 번역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국어의 일반적인 양식에 위배되지 않는 문법 구조 및 단어를 사용해 읽기에 거부하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된다(정성열 2008: 14). 이어 한국어와 영어의 구문 차이를 분석하면서 도착어, 즉 한국어의 자국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자국화 앞에 ‘도착어의’라는 수식어가 붙기는 했어도 결국 이 연구에서 자국화는 한국어의 어휘와 문법 구조를 충실히 따르는 것, 정확하고 올바른 도착어의 사용으로 축소되고 만다. 베누티의 논의에서 볼 때는 어휘나 문법 구조면에서 상대적으로 덜 정확하다 할 지라도, 번역된 텍스트라면 그 자체가 이미 자국화를 실현한 결과물이 되지 않을까.

한편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을 연구한 성승은(2010: 52)은 문화소의 번역 전략으로 가장 빈번하게 쓰이는 개념이 자국화와 이국화 번역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문화소의 이국화와 자국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라미에르(Ramière 2006: 152-166)를 바탕으로 하여 ‘음차-직역-설명 첨가-대체’를 제시하고 있다(성승은 2010: 55 재인용). 음차와 직역이 낯선 출발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며 번역사를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하는 이국화 전략이라면 설명 첨가와 대체는 도착어 독자에게 낯선 문화적·언어적 요인을 최소화하여 유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자국화 전략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국화와 자국화를 가르는 기준은 출발 어휘를 얼마나 드러내 보여 주는가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하여 출발 어휘의 발음이나 표현 구조를 드러내 주는 음차와 직역<sup>9</sup>은 이국화 전략으로, 이를 감춰버리는 설명 첨가나 대체는 자국화 전략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세부 전략 또한 자국화와 이국화를 양자택일 혹은 이항 대립의 개념으로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앞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자.

---

<sup>9</sup>여기서의 직역은 직역과 의역 논쟁에서의 직역보다 축소된 개념으로 보인다. 일단 “원문의 구조를 그대로 옮기는 생경한 번역”으로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한다.

정성열(2008)과 성승은(2010)의 두 연구에서 자국화와 이국화는 다만 언어적 표현의 전략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자국화가 대세이자 정전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이국화를 위해 담화의 측면과 텍스트 선택 측면, 또한 번역을 둘러싼 제반 상황 측면에서 행동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던 베누티의 논의를 지나치게 축소한다는 인상을 준다.

물론 베누티의 이국화 전략도 결국 담화, 즉 언어 표현 중심이기는 하다. 표준어와 문학 정전이 외국적인 것, 비표준적인 것, 주변적인 것들과 만날 수 있도록 고어, 구어, 지역적 및 사회적 방언, 은어, 상투어, 임시어 등을 동원해 혼질적인 담화를 형성하라고 제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어떤 담화 전략을 사용하느냐보다는 그 의도와 실제적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덧붙는다(베누티 2006: 321-322). 기존 문화적 담론 간의 위계 질서를 수정하고 문화적 계층 간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반복 재생산되는 제도적 가치와 관행들의 고착 상태에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의도와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성승은(2010)에서 이국화 전략으로 제시된 음차와 생경한 직역이 베누티가 이국화를 통해 의도하는 바를 마찬가지로 의도하고 달성하는지는 의문이다. 반대 전략인 설명 첨가와 대체에 비해 본다면 독자의 정보 처리 비용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덜 유창하게 만드는 방법임은 분명하지만 그 이상의 사회적·문화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자국화와 이국화가 언어적 표현 위주의 전략으로 파악되고 적용되는 데는 번역에 대한 국내의 논의와 연구가 여전히 언어적 표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작용할 것이다. 특정 번역의 언어적 표현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개입과 수정이 필요한지가 관심의 초점이 되다 보니 이론의 적용 또한 언어적 표현 중심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번역 과정에서 출발 텍스트의 구문 구조에 묶여버려 자연스러운 한국어가 구현되지 못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출몰하는 문제는 아직도 우리에게 현재진행형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여전히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서 별다른 고려 없이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를 적용하는 것은 아쉽다. 유창한 번역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나온 논의를, 아직 유창한 번역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입장에 마구잡이로 대입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이이나 의도, 효과를 살피지 않고 유창한 번역은 자국화로, 덜 유창한 번역은 이국화로 분류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고 태만한 접근이 아닐까.

### 3.3. 자국화와 이국화는 현재 우리의 상황 맥락에 적용 가능한 개념인가?

이론의 탄생은 나름의 상황 맥락을 지닌다.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상황 맥락이 다른 경우 이론의 적용이 가능할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된다. 한마디로 베누티의 이국화가 곧 우리의 이국화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상황 맥락의 중요성은 동일한 듯 보이는 주장의 서로 다른 속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술라이어마허는 “저자를 가능한 한 본래 자리에 가만히 둔 채 독자들을 저자 쪽으로 끌어오는” 번역을 옹호했다. 베누티는 그 이유를 독일 민족주의 강화로 분석한다(베누티 2006: 316).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이르는 당시 유럽에서 정치 문화적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는 프랑스였다. 술라이어마허는 낯설게 하는 기법으로 세계 각지의 문학 정전을 번역함으로써 독일 문학의 수준을 한 차원 높이고 결과적으로 민족주의를 고양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선영아(2009)가 정리한 프랑스의 사례를 보면 16세기 초 프랑스에서도 ‘독자를 저자 쪽으로 끌어오는 번역’이 압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때의 상황 맥락은 민족어 형성의 필요성이었다. 당시 라틴어의 지배력 하에 프랑스어는 아직 형성 단계에 있었고, 번역사들은 외래어와 신조어의 사용을 통해 프랑스어를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프랑스어의 지위가 어느 정도 확립되면서 번역은 급격히 평가 절하되고 ‘유려하되 원작에 충실하지 못한 번역’이 대세로 자리잡았다는 것이다.

베누티의 이국화 논의는 또 어떠한가? 이 또한 ‘독자를 저자 쪽으로 끌어오는 번역’에 해당한다. 하지만 그 맥락은 패권적 가치의 맹목적 답습이라는 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으로 위의 맥락들과는 사뭇 다르다. 베누티는 번역서 출간의 비중이 극히 적은 영어권 출판계의 상황을 지적하고 영어권 국가, 영어, 그리고 영어적 글쓰기가 누리는 패권적 지위를 경계하는 데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가 제기한 ‘투명한 번역, 유창한 번역’의 문제는 소수 언어 문학 텍스트가 영어로 번역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한다. 이러한 번역이 자국의 문학 정전 체계를 고스란히 보전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또한 영어권의 언어 문화 패권

---

<sup>10</sup>하지만 그럼에도 번역사의 낮은 지위, 상업적인 이해 관계에 따른 베스트셀러 번역 등 베누티가 제기한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존재한다. 이들 문제는 소수 문화의 소수어 텍스트를 패권적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패권 문화의 텍스트를 소수어로 번역하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흔하다.

을 위협하는 가치나 논의는 배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국화 전략은 문화적 혁신과 변화의 촉진이라는 목적(베누티 2006: 322)을 달성하기 위해 요청되는 것이다.

위의 세 사례에서 ‘독자들을 저자 쪽으로 끌어오는’ 번역은 공통적으로 강조되지만 그 상황 맥락은 문학 수준 고양, 민족어 형성, 문화적 혁신으로 각기 다르다. 동일한 개념이 전혀 다른 목적과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방증이다.

베누티의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탄생 맥락을 파악하고 또한 우리의 현재 상황을 검토하여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베누티가 제시한 영미권 출판 번역 시장과 우리의 상황은 꽤 대조적이다. 1990년에 미국에서 출판된 번역서는 전체 도서의 0.03% 수준이지만(Venuti 1995: 13) 2004년 한국의 총 발행 도서 종수에서 번역서가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8.5%이다(이상원 2006: 26).<sup>10</sup> 또한 번역서 중에서는 영어권에서 번역된 도서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슬람 세력의 침입과 몰락을 경험하면서 9-13세기에 번역의 중흥기를 경험했던 서양에 비해 우리는 번역의 역사도 일천하다. 언문이라 불리던 훈민정음이 공식적으로 국문(國文)의 자격을 얻어 사용된 것은 갑오경장(1894) 이후로 불과 120여 년 전이다. 서양어에서 최초로 번역 출간된 서적인 『턴로력당(천로역정)』이 출간된 1894년을 시발로 잡는다면 번역의 역사 또한 120년에 불과하다. 그 세월 동안 우리에게 대세로 자리잡은 번역은 어떤 형태일까? 저자를 가능한 한 본래 자리에 가만히 둔 채 독자들을 저자 쪽으로 끌어오는 번역인가, 아니면 독자들을 본래 자리에 가만히 두고 저자를 독자 쪽으로 끌어오는 번역인가? 혹은 아직도 민족어가 형성되는 과도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외래어와 차용어의 틈바구니에서 무엇이 가장 표준적인 한국어인지 성립되는 중일까? 그래서 정확하고 올바른 한국어가 강조되는 것일까?

금방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은 아니다. 하지만 검토가 필요한 질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검토하는 것은 다른 상황 맥락에서 탄생한 이론을 적용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다. 달리 보면 이는 이론이라는 새로운 창을 통해 우리 현실을 성찰하는 귀중한 기회이기도 하다.

이미경(2009)은 베누티의 논의를 두고 영미권 시장에서의 패권 언어와 소수 언어 개념에 의거하여 전개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이 때문에 자신이 세운 가정 속에서만 작동하는 편향성을 드러낸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어느 이론가의 논의도 이러한 편향성

은 피할 수 없다. 누구에게나 각자가 처한 상황 맥락과 경험은 일차적인 논의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경의 지적은 각 이론이 지닌 한계와 편향성을 인식하고 적용을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가는 말

이제 서두에 제시한 의문에 답할 차례이다. 학생들은 왜 다른 이론에 비해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의 적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는가? 국내 연구 고찰을 통해 간접적인 답변을 구해 보자면,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가 직역과 의역 대립의 연장선으로, 거기에 한층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느낌을 주는 양자택일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또한 언어적 표현 전략을 설명하기 위한 손쉬운 이항 대립 사고틀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자국화와 이국화 개념을 우리의 번역 사례 분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황 맥락의 비교 분석이 필요하다고 답할 수 있다. 베누티는 유창하고 투명한 번역이 대세이자 규범으로 자리잡은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저항의 방식으로 서 이국화 전략을 호소한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유창하고 투명한 번역이 대세를 이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베누티의 이국화가 그대로 우리의 이국화가 될 수는 없다. 무엇이 우리의 자국화이고 이국화인지는 베누티 논의의 상황 맥락과 우리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판단한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의 결말은 모호하기 짝이 없다. 의역이 곧 자국화인 것도, 정확하고 올바른 도착어가 곧 자국화인 것도, 베누티의 자국화 개념이 곧 우리의 자국화 개념이 되는 것도 아니다.

베누티의 자국화와 이국화 논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대신 이 글은 서구 이론을 우리에게 적용하기에 앞서 그 논의의 내용과 상황 맥락을 좀 더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데서 그치고자 한다. 우리의 번역학계는 서구 이론에 대한 편향성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므로 신중한 접근과 적용에 대한 강조도 나름의 가치를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서구 이론을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신성불가침인 양 대하자는 주장은 아니다. 이는 또 다른 불균형과 불평등을 낳을 수 있다. 서구 이론의 변형과 조정은 충분히 가능해야 한다. 다만 그 이전에 치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 참고 문헌

- Lefevere, A. (ed. and trans.) (1977). *Translating Literature: The German Tradition from Luther to Rosenzweig*. Assen: Van Gorcum.
- Ramière, N. (2006). Reaching a foreign audience: Cultural transfers in audiovisual translation, *The journal of specialized translation* 6.
- Venuti, L.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 A history of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 베누티, 로렌스(1998). 임호경 역(2006). 『번역의 윤리 - 차이의 미학을 위하여 (*The Scandals of Translation: Towards an ethics of difference*)』 (New York: Routledge). 서울: 열린책들.
- 선영아(2008). 동화의 미학과 차이의 윤리: 문학 번역의 두 가지 명제. 『번역학연구』9(4): 195-219.
- 성승은(2010).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성우(2010). 언어, 번역 그리고 정체성: 베르만, 베누티, 그리고 들뢰즈의 번역론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13(2): 121-140.
- 이미경(2009). 베누티의 '차이의 윤리'와 이국화 번역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베르망의 관점으로. 『번역학연구』10(2): 83-104.
- 이상원(2006). 『한국 출판번역 독자들의 번역 평가 규범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정성열(2008). 학술 영한 번역에서의 자국화와 해석적 전략.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 **Author's e-mail address**

denise@hanmail.net

### **About the author**

Sang Won Lee completed her Ph.D. at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 2005(Translation Studies). She is Lecture Professor of Faculty of Liberal Educatio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2006-present), and published more than 50 translated works as a freelance translator.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translation education, translation publishing practice and translation criticism.